

06. 율곡의 저서

율곡의 저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학집요』, 『격몽요결』, 『동호문답』, 『만언봉사』가 있다. 이들 서적은 별도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여기서는 『경연일기』, 『기자실기』, 『김시습전』, 『학교모범』, 『소학집주』, 그리고 『순언』을 소개한다.

1) 『경연일기(經筵日記)』

율곡이 명종(明宗)부터 선조(宣祖) 때까지, 즉 1565년부터 1581년까지 17년간 경연(經筵)에서 강론한 내용을 적은 책이다. 경연(經筵)이란 임금에게 유교의 경전이나 역사서 등을 강론하는 일을 말하는데, 경유(經帷)라고도 한다. 경연의 목적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이상 정치 실현을 위한 것이었으나 왕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예종 때 경연이 처음 도입되었으나 무신 집권 시기에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유교가 중시되면서 경연이 임금의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경연의 자리에서 임금은 신하들과 유교의 경전이나 역사 서적을 읽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현안 정치 문제를 협의하기도 해 경연이 정치의 중요한 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사용된 강의 교재는 기본서로 사서와 오경 및 역사서인 『자치통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있었다. 이 밖에 『성리대전(性理大全)』, 『근사록(近思錄)』, 『소학』, 『심경』, 『대학연의(大學衍義)』, 『정관정요(貞觀政要)』, 『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이 사용되었다.

강의 방식은 한 사람이 교재의 원문을 음독한 뒤, 번역하고, 설명 하고 나면, 왕이 질문을 하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충 설명을 하였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함께 참석한 관료들과 정치 문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태조는 경연 청을 설치하여 경연을 시행했고, 세종은 즉위한 뒤 20여 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으며, 성종도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번씩 경연에 참석했다. 세조와 연산군 시기에는 경연이 잠시 폐지되기도 했으나 곧 부활하여 고종 때까지 존속하였다.

친필로 쓴 『경연일기』 원본은 6·25 등을 거치면서 일부 유실된 부분도 있으나 다른 판본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율곡전서』 28권에서 30권까지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대동야승』 권 14~권 15에도 수록되어 있다.

『경연일기』에는 율곡이 경연 참여해서 강연한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요 사건과 인물에 관한 상세한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 숙종 시대 이후에는 따로 『석담일기(石潭日記)』라는 이름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석담일기』 1권은 1565년(명종 20년) 7월에서 1571년(선조 4년)까지, 2권은 1572년에서 1576년까지, 3권은 1577년에서 1581년까지의 경연 내용이 실려 있다.

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이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에 『석담일기』가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문이 공개되어 있다.

『석담일기』 상권 맨 첫 부분 (명종대왕 20년 7월 13일 자) 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7월 13일. 문정왕후의 상(喪)이 발인하려 할 때 큰비가 내렸다. 예조 판서 윤춘년이 백관(白官)들은 말을 타고 관을 따르게 하기를 제안했다. 대신 가운데는 이러한 제안을 찬성하는 이도 있었으나,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대여(大輿)를 따르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니다.”라는 임금의 전갈이 있어 의논은 그것으로 끝났다.

15일. 하관할 때 임금이 병환으로 대여를 따르지 못했다. 우리 왕조의 예문(禮文)에, 만일 임금이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면 신주를 세울 때 반드시 삼 공(三公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헌관(獻官)으로 하여 임금을 대신 행례하게 되어 있다. 이때 좌의정 심통원과 우의정 이명이 산릉에 있었는데, 예문을 다시 상고해 보지 않고 이조로 하여금 참찬 송기수를 차출하여 헌관으로 하니, 식자들이 예가 아니라고 나무랐다.

28일. 졸곡(卒哭)에 임금과 백관들이 모두 흑립(黑笠)을 쓰니, 식자들이 길례(吉禮)를 따르는 것이 빠름을 한탄하였다. 대개 조선 왕조의 상례가 비록 하은주 삼대의 제도에 모두 합치하지는 않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자못 상세하여 한나라 혜제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율곡의 『경연일기』에는 경연 현장에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궁성을 출입하면서 율곡이 듣고 본 여러 가지 일들과 고금의 다양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생각도 함께 담았다.

1575년(선조 8년)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선조 임금의 면전에서 임금을 질책하는 내용도 실려있다. 『성학집요』를 임금에게 올렸을 때의 이야기다.

“이이가 『성학집요』를 올리고 이어서 글을 올려 위학(爲學)·위정(爲政)의 도리를 극진히 논하였더니, 임금이 답하기를, ‘올린 『성학집요』를 살펴보니 치도에 크게 도움이 되니 심히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이이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을 뜻이 간절하여 경전과 역사책에서 학문과 정사에 절실한 것을 가려 뽑아 차례를 나누어 수기(修己)·치인(治人)으로 순서를 만드니 대개 5편이었다. 책이 이루어져서 임금에게 올렸더니 임금이 그 이튿날 경연에 나와 이이에게 이르기를, “그 글이 심히 절실하니, 이것은 부제학(율곡)의 말이 아니라 곧 성현의 말씀이니, 백성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이다. 다만 나 같은 불민한 임금으로는 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하였다. 이이가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려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매양 이러한 하교가 하시니 신하들이 극히 답답해합니다. 전하께서 자질이 뛰어난 것이니, 성학(聖學)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건대, 핑계 대지 마옵고 독실한 뜻으로 분발하시어 덕을 이루게 하십시오.”

2) 『기자실기(箕子實記)』

1580년에 율곡이 집필한 것으로 기자(箕子) 조선 관련 기록이다. 율곡은 윤두수의 『기자지(箕子志)』를 읽고 실망하였는데, 잡다한 자료만 일정한 체계 없이 늘어놓아 기자에 대한 전체적인 면모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새롭게 정리하여 집필했다.

『기자실기』 맨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윤두수의 『기자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있다.

“윤공 두수(尹公斗壽)가 일찍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중국 천자에게 조현(朝見) 하였다. 중국 조정의 관리들이 기자가 한 일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여 왔다. 윤공은 그것에 답하지 못함을 민망스럽게 여겼다. 돌아온 뒤에 널리 경·사·자·서(經史子書)의 책들을 참고하여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고 성현이 논하신 것과 그 이하 시인(詩人)들이 읊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워 모아 서책을 만들어 책 이름을 『기자지(箕子志)』라고 하였으니, 그 공로가 참으로 컸고 후학에게 또한 지극히 좋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다만 생각되는 것은 경전을 뒤섞어 편찬하였으므로 계통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이가 이에 외람됨을 헤아리지 않고서 『기자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골라서 요약하여 한 책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 경과와 세계(世系)며 지나온 연수 등을 대략 서술하여 책 이름을 『기자실기(箕子實紀)』라 했다. 읽기에 편리하기를 바란다.”

『기자실기』의 분량은 아주 적어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 200자 원고지로 38매, A4용지로 5장 정도다.

주요 내용은 기자가 한반도로 와서 동이족을 교화시키고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이야기이다. 율곡은 우리나라를 ‘소중화(小中華)’로 파악하였으며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자에 대해 서술했다.

그동안 기자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기자가 망명하여 우리나라에 건너왔다는가, 기자조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김시습전(金時習傳)』

1582년 율곡이 김시습(金時習, 1435년~1493년)에 대해서 지은 전기이다. 『율곡전서』 14권의 잡저에 실려 있다.

김시습은 조선 초기에 활동한 문인이자, 학자이며 불교 승려였다. 한성부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강원도 강릉에서 지낸 적이 있으며 그의 본관 역시 강릉이다. 호는 매월당(梅月堂)이며 불교 법명은 설잠(雪岑)이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은둔 생활을 하다 승려가 되었다. 이후에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글을 지었다.

율곡은 『김시습전』에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직후의 김시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시습의 나이 21세였다. 삼각산에서 글을 읽다가 서울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그 소식(단종 손위遜位)을 듣고 즉시 문을 닫아걸고 3일 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않다가 방성통곡한 다음에 읽고 쓰던 서책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고, 광기를 일으켜 뒷간에 빠졌다가 도망하여 불문(佛門)에 의탁하고 승명(僧名)을 설잠(雪岑)이라 하였다.

그의 호는 여러 번 바뀌어 청한자(淸寒子)·동봉(東峰)·벽산청은(碧山淸隱)·취세옹(贅世翁)·매

월당(梅月堂)이라 하였다. 그의 생김은 못생기고 키는 작았으나 뛰어나게 호걸스럽고 재질이 영특하였으며 대범하고 솔직하여 위의(威儀)가 없으며 강직하여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했다. 시세(時世)에 분개한 나머지 울분과 불평을 참지 못하였고, 세상을 따라 어울려 살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드디어 육신에 구애받지 않고 세속 밖을 방랑하여 우리나라의 산천치고 그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김시습전』은 율곡이 지은 유일한 전기이다. 율곡도 어린 시절을 강릉에서 보냈으며 불교에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시습에 대해 깊은 공감을 가지고 이러한 전기를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율곡은 김시습과 관련하여 일화로 전래 되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하여 사람들이 김시습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4) 『학교모범(學教模範)』

1582년(선조 15년)에 율곡이 왕명을 받아 학교와 가정, 사회생활의 규칙을 정하여 저술한 규정집이다. 당시 율곡은 대제학으로 재직하던 때였는데 관학 교육을 위해 저술했다.

율곡은 선조가 통치하던 당시 상황을 위로는 조정에 인재가 모자라서 벼슬에 빈자리가 많고 아래로는 풍속이 날로 퇴폐하여 윤리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육을 올바로 세우고, 참교육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논하였다. 그는 특히 이 책에서 잘못된 지난날의 습속을 제거하고 선비의 기풍을 크게 진작시키자고 주장했다.

책 내용은 모두 16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생활과 가정 및 사회생활의 규정이 서술되어 있다. 유교 정신에 뿌리를 둔 전통사회의 교육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뜻을 세움(立志)
- ② 몸가짐(檢身)
- ③ 글 읽기(讀書)
- ④ 말을 삼가는 것(慎言)
 - ⑤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存心)
- ⑥ 아버이를 섬김(事親)
- ⑦ 스승을 섬김(事師)
- ⑧ 벗을 택함(擇友)
- ⑨ 가정생활(居家)
- ⑩ 사람을 접함(接人)
- ⑪ 과거에 응시하는 것(應舉)
- ⑫ 의를 지키기(守義)

- ⑬ 충직함을 숭상함(尙忠)
- ⑭ 공경을 돈독히 함(篤敬)
- ⑮ 학교생활(居學)
- ⑯ 글 읽는 방법(讀法)

참고로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여러 유생이 학당에 일제히 모여 문묘에 배알하고 읍하는 예를 마친 뒤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 스승이 있으면 북에 앉고 여러 생도는 삼면에 앉는다. 장의[掌議, 조선시대 성균관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재회(齎會)의 임원]가 소리를 높여 『백록동교조』 또는 『학교모범』을 한 번씩 읽는다. 장의가 유교 시에는 유사 혹은 글을 잘 읽는 자가 대리한다. 그리고 나서 서로 토론하며 실질적인 공부로써 권면하고, 스승이 있으면 스승에게 질문한다. (중략)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로 질병이 있거나 시골에 갔거나 기일을 당한 외에 사고를 핑계하고 참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두 번이면 1개월 동안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도 결석하면 스승과 선배에게 고하여 체벌을 의논한다.”

5) 『소학집주』

율곡은 『소학』을 아주 중요한 유교 경전으로 평가하고 『소학』 관련 주석서를 모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라고도 불린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그는 『소학』을 『대학』,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오서(五書)’라고 부르고 글을 배우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였다.

『격몽요결』(「독서장(讀書章)」)에서 율곡이 ‘오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학』을 읽어 부모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웃어른에게 순종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하게 지내는 도리를 하나하나 자세히 음미하여 힘써 행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대학』 및 『대학혹문(大學或問)』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를 하나하나 참으로 알아내어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논어』를 읽어서, 인(仁)을 구하고,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을 하고, 본원(本原)을 함양하는 공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생각하여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맹자』를 읽어서, 의리(義利)를 밝게 분별하는 것과 인욕(人欲)을 막고 하늘의 이치(天理)를 보존하는 학설에 대해 하나하나 밝게 살펴서 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다음에는 『중용』을 읽어서, 성정(性情)의 덕(德)과, 이치를 미루어 아는 의미와 만물이 길러지는 오묘한 이치를 하나하나 음미하고 찾아내어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소학』은 여러 경전의 내용 가운데에서 어린 학생들이 알아야 할 일상생활의 예절과 수양을 위한 각종 격언 및 충신·효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저자는 송나라 주자로 알려졌지만 실지로는 1187년(남송 순희 14년)에 주자의 제자 유자징(劉子澄)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책이다.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편은 경전을 인용한 개론에 해당하는데 입교(立敎, 교육의 원칙), 명륜(明倫, 윤리를 밝힘), 경신(敬身, 몸을 공경함), 계고(稽古, 옛 도를 살펴봄. 즉 앞의 기본 강령에 부합하는 사례 소개)로 나누어 있으며, 외편은 실지 사례를 소개한 가언(嘉言, 아름다운 말씀 즉 격언과 교훈), '선행(善行, 훌륭한 행실)'으로 나누어 있다.

이렇듯 『소학』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소개하고 학문의 토대를 닦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하는 필수적인 책이었다. 일반적으로 유교에서는 '사서'만을 중시하였지만 율곡은 『소학』까지를 포함하여 '오서'라고 부르고 중시했다.

『소학집주』는 조선 최초로 『소학』 주석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소학』 연구서나 학술서는 아니고 『소학』을 읽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실용서에 가깝다. 율곡이 사용한 기왕의 『소학』 주석서는 하사신(何士信)의 『소학집성(小學集成)』, 오눌(吳訥)의 『소학집해(小學集解)』, 진조(陳祚)의 『소학집해정오(小學集解正誤)』, 진선(陳選)의 『소학증주(小學增註)』, 정유(程愈)의 『소학집설(小學集說)』 등이다. 기본적으로는 왕오의 『소학집주대전』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들 서적에 나오는 주석을 충실히 전하는 입장에서 편찬되었다.

김경남의 연구(「율곡 이이의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의 저본 및 편찬 방법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소학집주』의 서술 체제는 정유의 『소학집설』을 따랐지만 내용이나 형식에서는 『소학집주대전』에 크게 의존하였다.

율곡은 10곳에만 간략하게 주를 달았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앞선 주석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율곡의 『소학집주』는 이후 조선의 유학자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다. 1612년에 조정에서 초간한 뒤, 1694년에 숙종이 서문을 붙이고 제자 김장생(金長生)이 고증을 더해 새로운 체재로 간행되었다. 이후 조선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학』 주석서이자 학습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글을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유교적인 윤리관을 체득하는 수신서(修身書)로 장려되었으며, 향교와 서원, 그리고 서당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이 『소학집주』를 가르쳤다.

6) 『순언』

율곡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유학과 관련된 문구를 발췌하여 주석을 붙이고 풀이하였는데 이것이 『순언(醇言)』이다. 부제는 ‘노자초해구결(老子鈔解口訣)’이다. ‘노자의 책 일부를 발췌하여 구결(口訣, 토)을 달고 해설하였다.’라는 뜻이다. ‘순(醇)’이란 글자는 진하다, 변하지 않는다, 혹은 다른 것과 섞임 없이 순수하다는 뜻이다. ‘순언’은 그러므로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발문을 지은 홍계희(洪啓禧, 1703~1771)는 충청도 관찰사로 연산(連山, 충남 논산군 연산면)을 지날 때에 김집(金集)의 후손에게서 김집이 필사해 둔 『순언』을 우연히 구해보고 멸실될까 걱정하여 몇 권을 활자로 찍었다고 한다.

그는 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 한유는 순자의 학문이 몹시 순수하나 약간의 병통이 있다고 하여 유학의 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을 삭제한 뒤 성인의 서적에 덧붙이려 하면서 ‘이것 역시 공자의 뜻에 합치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이 책을 짓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은 아마도 이것에서 취하신 듯하다. 내가 본문을 살펴보니 경전에 이반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다섯에서 셋은 버렸으니, 선생께서 택한 것이야말로 순수(醇)하다고 해도 될 것이다. (昔韓愈以荀氏爲大醇而少疵, 欲削其不合者, 附於聖人之籍, 曰亦孔子之志歟. 先生編書命名之意, 或取於此耶. 啓禧攷本文, 蓋去其反經悖理者五之三介, 其取者誠不害乎謂之醇也.)”

노자의 『도덕경』은 도가의 책자로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멀리 해야 하는 책으로 인식되었으나 율곡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도덕경』을 읽고 유학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순수한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순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인이 쓴 최초의 『도덕경』 주석서로 알려져 있으며,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도가 철학을 순수하게 학문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조선시대의 도가 철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성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박세당(朴世堂)의 『신주도덕경(新註道德經)』, 서명응(徐命膺)의 『도덕지귀(道德指歸)』, 이충익(李忠翊)의 『담로(談老)』, 그리고 홍석주(洪奭周)의 『정로(訂老)』 등에도 이 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인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홍계희의 발문(跋文)

제1장 천도조화(天道造化) : 도즉태극(道卽太極)

제2장 도덕(道德) : 최상의 존귀함(無對之尊)

제3장 본체(本體)·묘용(妙用) : 무위(無爲)·무불위(無不爲)

제4장 심체(心體) : 무용(無用)

제5장 현덕(玄德) : 지성연미(至誠淵微)의 덕

제6장 일손(日損) : 본연지성(本然之性)

제7장 입도성덕(入道成德) : 절제(齋)

제8장 포일(抱一) : 무아(無我)

제9장 자지자승(自知自勝) : 지실의리(智實義理)

제10장 지족지지(知足知止) : 안어성명(安於性命)

제11장 견천도(見天道) : 구방심(求放心)

제12장 상족(常足) : 응용무궁(應用無窮)

- 제13장 삼보(三寶) : 자(慈), 검(儉), 겸(謙)
- 제14장 유약(柔弱) : 인복(仁覆)
- 제15장 공성신퇴(功成身退) : 검(儉)
- 제16장 천위본(賤爲本) : 고귀(高貴)
- 제17장 상선약수(上善若水) : 실근어도(實近於道)
- 제18장 부쟁지덕(不爭之德) : 자유겸하(慈柔謙下)
- 제19장 도은무명(道隱無名) : 체용일원(體用一源)
- 제20장 정중(靜重) : 절제(齋)
- 제21장 청정(淸靜) : 박연(泊然)
- 제22장 현동(玄同) : 묵이지지(默而識之)
- 제23장 함덕지후(含德之厚) : 성일무위(誠一無僞)
- 제24장 전덕지효(全德之效) : 전진생리(全盡生理)
- 제25장 체도(體道) : 무아도일(無我道一)
- 제26장 수덕(修德) : 건중건극(建中建極)
- 제27장 부쟁(不爭) : 순리무사(順理無私)
- 제28장 습명(襲明) : 종용중도(從容中道)
- 제29장 무상심(無常心) : 선신(善信)
- 제30장 신명(神明) : 대대(對待)
- 제31장 무위교화(無爲教化) : 지극(止極)
- 제32장 무위지익(無爲之益) : 절제(齋)
- 제33장 과이물강(果而勿強) : 치인(治人)
- 제34장 승이불미(勝而不美) : 무심(無心)
- 제35장 도이천하(道莅天下) : 수명(修明)
- 제36장 수기(修己) : 신시선종(慎始善終)
- 제37장 부쟁(不爭) : 요종진변(要終盡變)
- 제38장 천도무친(天道無親) : 휴영익겸(虧盈益兼)
- 제39장 피갈회옥(被褐懷玉) : 지선(至善)
- 제40장 대도심이(大道甚夷) : 솔성지도(率性之道)

『도덕경』의 총 81장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40장으로 축소하여 재구성했다. 원문에 토를 달았으며 자구마다 상세한 주석을 붙였다. 각 장의 끝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요약해 놓았다.

1~3장은 도체(道體), 4장은 심체(心體), 5~35장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36장은 시종(始終), 37~38장은 천도(天道), 39~40장은 행도(行道)를 설명했다. 말하자면 노자의 『도덕경』을 『대학』의 수기치인 구조로 재편성하였다.

율곡은 『순언』에서 노자 사상과 유교 사상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자와 공자가 모두 하나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여러 유학자의 학설을 근거로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노자를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노자의 근본적인 입장은 결국 유교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도가사상의 핵심 사상을 유교에 통합시키려고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종성은 이러한 『순언』의 유교적 성격에 대해 「율곡의 『순언』에 반영된 『성학집요』의 특

성과 의의」(『울곡학연구』39, 33쪽)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울곡은 유학적 지식인답게 『노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학적 관점을 기초로 풀이하였다.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수기치인이다. 요컨대 『순언』은 수기치인의 맥락을 통해 『노자』를 해석한 저술로서, 유가 철학과 노자 철학의 상호 접점의 정신을 확인하고자 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순언』의 전반부는 수기론의 내성학(內聖學)의 특징을, 그리고 후반부는 치인론의 외왕학(外王學)의 특징을 위주로 편집되었다. 이러한 점은 『순언』이 『성학집요』의 형식상 체계와 내용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가와 도가의 학문적 회통을 모색한 구체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울곡이 『순언』 집필 전에 발표한 『성학집요』의 수기·치인의 사상이 『순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울곡전서』나 여타 다른 울곡의 문집에서 이 『순언』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노자 사상은 이단으로 경계하였기 때문에 후손이나 제자들이 울곡의 『순언』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